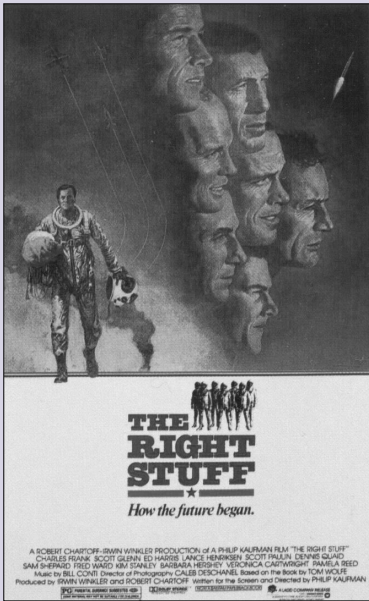


항공 영화 필사의 도전

영화 <필사의 도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우주개발 초기의 일화들을 실감나게 극화한 명작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저주받은 걸작이기도 하다.



원제: The Right Stuff(1983년)

감독: 필립 카우프만

주연: 샘 세퍼드(처크 예거 역)
스콧 글렌(알란 세퍼드 역)
에드 해리스(존 글렌 역)
프레드 워드(거스 그리솜 역)

시상내역: 1984년 오스카상 4개부문 수상, 1984년 미국영화음향편집자상 골든 릴상 수상, 1985년 블루리본상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수상, 1985년 보덜상 최우수 비유령영화상 수상, 1985년 런던 영화비평가상 각본상 수상.

몇 안되는 걸작 우주 영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약 20여 년 전인 19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유치원~국민학교를 다니던 어린이들 사이에서 ‘우주비행사’라는 직업은 그야말로 최고의 인기직종이었다. 아마 ‘이폴로 쇼크’나 ‘스푸트니크 쇼크’에 비견될만한 당시의 ‘볼룸 비아 쇼크’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마치 일반적인 비행기처럼 생긴 새하얀 우주왕복선이 로켓에 실려서 우주공간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지구로 돌아와서 착륙-그것도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비행기가 하는 바로 그 착륙을 통해 돌아온다는 것은 요즘에는 대단찮게 보일지는 몰라도 당시에는 마치 공상과학작품 속에서나 나오던 대기권과 우주를 자유롭게 들락날락 거리는 우주선이 별안간 현실로 등장한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래서인지 80년대에는 90년대에 비해 우주 관련 상품(심지어는 태엽 달린 우주왕복선 장난감 같은 것 까지...)도 많이 쏟아져 나왔고 관련영화도 많이 나왔다. 항공기가 등장하는 영화보다 제대로 찍기가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우주선이 등장하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 때의 우주영화는 참 괜찮은 작품들이 많았다.

이 지면을 빌어 소개하는 영화 <필사의 도전> 역시 우주라는 소재가 한참 날리던 시절인 80년대에 만들어진 전형적인 우주영화이다. 그것도 당시 아이들의 최고 인기직업이던 우주비행사가 되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한!

미국 항공우주개발의 황금기

1940~60년대에 걸쳐 이루어진 미국 우주개발 과정을 그린 톰 울프의 책에 기반한 이 영화는 1947년, 그 유명한 처크 예거의 음속 돌파비행 장면부터 시작한다. “우주비행 하는데 그간 마하 1 간신히 넘는 실험기가 왜 나오냐” 싶기도 하지만 이 음속돌파가 바로 모든 우주개발의 알파요, 오메가였다.

사람이 탄 항공기가 음속을 넘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더욱 빠른 항공기로, 심지어는 로켓을 통해 우주까지 사람을 날려보내는 계획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물론 그 이면에는 소련과의 체제경쟁도 한 몫을 했지만... 아닌게 아니라 이 영화에서도 소련이 먼저 우주에 인공위성과 사람을 보내자 분해 어쩔 줄 모르는 미국인들의 모습이 아주 실감나게 그려져 있다.

미국도 질세라 미 육해공군의 최우수 파일럿 7명을 모아 우주비행사로 훈련시키는데, 그 가혹한 훈련과정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다. 아마 영화를 본 어린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우주비행사의 꿈을 포기해 버렸을지도 모르겠다. 또한 이들이 타고 날아갈 로켓도 갖은 시행착오를 통해 힘들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잘 묘사되어 있다. 그야말로 50~60년대 미국의 힘들었던 우주개발의 여정이 이 영화 한 편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는 셈이다.

소련이 사람을 우주로 쏘아올린 지 3주가 지나 미국도 사람을 우주에 보내게 되고, 이후 우주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와중에서 적지 않은 희생과 손실도 발생하지만 우주비행사들은 사회의 명사로 부상하고, 만인의 각광을 받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인 처크 예거는 우주행을 거부하고 에드워드 공군기지에 남아 홀로 실험비행에 매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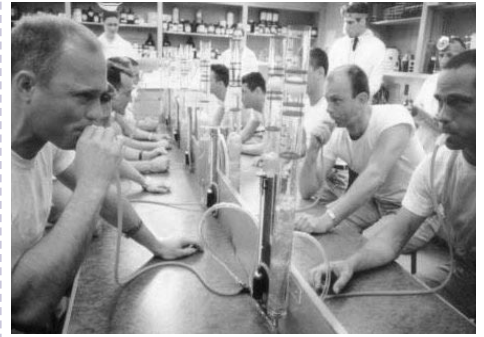
영화의 라스트신은 그야말로 상징적이다. 우주비행사들이 부인을 데리고 야한 팬시댄스를 관람하는 사이, 에드워드 기지에 홀로 남은 처크 예거가 실험기를 몰고 실험비행에 도전하다가 추락, 얼굴에 중화상을 입는 장면을 보여주며 영화는 막을 내린다. 그야말로 '필사의 도전'을 한 사람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를 소리 없이 질문하는 영화인 것이다.

한국시장에서는 '저주받은 걸작' ?

영화는 샘 세퍼드, 에드 해리스 등의 쟁쟁한 명우들이 영화개봉 당시까지 대부분 생존해 있던 실존 우주비행사들로 출연하여 호연했다. 특수효과도 10여 년 후에 나온 우주영화 <아폴로 13호> 등에 견주어도 별로 떨어지지 않는 훌륭한 수준이었다. 사실 항공우주산업의 본가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이나 미국 영화계에서조차도 항공우주 관련 영화는 '예술' 좀 한다는 사람들 모인 평단에서 별로 좋은 소리 듣기는 어려운 게 현실인데, 이 영화는 그런 통념을 뒤집고 1984년 오스카상 4개 부문 석권을 비롯 미국 국내외의 여러 영화제에서 많은 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렇게 훌륭한 우주영화이지만 우주 분야에 대해 일천했던 당시의-한국산 인공위성이 우주공간을 날고 있는 지금도 그렇긴 하다-국민적 관심 때문이었는지 국내에서는 그리 좋은 반응은 얻지 못했다. 90년대 초반에 비디오로 한 번 출시되었고, 그 이후 텔레비전 방송에서 그야말로 '기분 내킬 때 어찌다가' 한 번씩 틀어주던 것이 이 영화의 국내공개 이력의 전부다. 그나마 다행으로 요즘은 DVD로 재발매가 되어 있으니 이 영화의 명성을 알면서도 보지 못하신 분이라면 필히 관람토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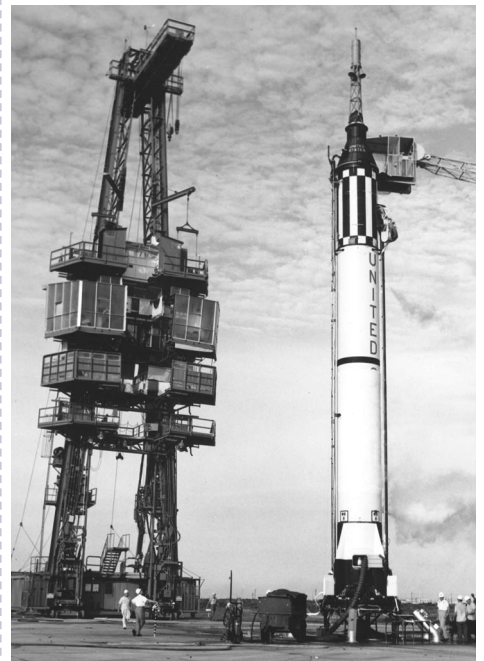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우주비행사 선발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옛날 우리보다 앞서 우주를 개척했던 우주개발 선진국들은 어떤 방식으로 우주를 정복했는지, 이 영화는 좋은 타산지석을 제공해 줄 것이다. ☺



우주비행사가 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가혹한 훈련 묘사가 아주 실감난다.



우주를 여행하고 돌아온 우주비행사들은 국민적 영웅으로 부상한다.



미국의 첫 유인 인공위성인 머큐리 로켓